

두립주의 성교육[Together Belief Sexual Education]

1. 두립주의 성교육의 개념과 정의

두립주의[Together Belief]에 기반한 성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남성과 여성[언코[UniComp]]이 조화롭게 협력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조절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립주의 성교육에서는 성적 신중결정권과 성적 신뢰결정권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내면화하도록 합니다.

2. 전통적 성교육의 한계점

1) 타락 후 원죄와 원벌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아야 할 실과를 혼자 있던 하와가 어떤 동물의 속임수로 인해 먹게 됨(히브리성경). 그리고 나서 그 실과를 그녀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음. 아담은 의심 없이 그것을 먹었음. 순간 눈이 밝아져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음. 이로 인해 원죄가 들어왔으며, 그 원죄는 성적 타락이 아니라 자유성의 타락이었음. 자유성의 타락(the corruption of liberty)은 한쪽으로 치우쳐 엷매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영적 질병을 의미함. 이로 인해 남자는 여자의 신체를 원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다스림을 받게 되는 관계가 형성됨(창세기 3:16). 결국 서로 그 굴레의 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음.

2) 성경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한 서술은 없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으로 구성된 정경임. 인간의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보여주기 위한 아가와 성사건들이 존재하나,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서술은 미비함.

3) 고대 근동의 샤머니즘적 성사 체계와 현대가 부합하지 않음.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의 정자가 “신이 내려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위로 사정하면 낭비로 간주되어 죄로 여겨졌음.

남성의 성적 에너지를 약화시켜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됨.

오난의 경우, 형수가 형의 후손을 잇기 위해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을 따르도록 명령받았으나, 자신의 씨를 땅에 흘리며 이 의무를 거부함. 하나님께서 이를 악한 행위로 간주하여 그를 죽이셨으나, 자위행위 자체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님.

창세기 38장 9절을 자세히 보면, 오난은 씨가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형수와 성관계를 하면서도 형에게 후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정액을 땅에 뿌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죽임을 당했음.

레위기 20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식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음.

따라서 자위와 오난의 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현대에는 정자의 성분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으로 구성되며, 30일 이내에 배출되어 신선한 정자를 유지할 수 있음.

자위행위는 스트레스 해소, 조울증과 우울증 예방, 불면증 개선, 심장 건강 유지 등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성 정체성 확립과 미래 배우자와의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형성에도 기여함.

케투바(Ketubot)라는 미슈나와 탈무드의 세데르 나심(Seder Nashim, ‘여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대교 결혼 계약서가 전통적인 유대교 결혼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결혼 관련 법률과 부부 간의 의무를 다룸.

해당 논문은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계약서의 내용,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을 명시함.

이는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음식,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 시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도 명시됨.

또한 결혼 해소 시의 재정적 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함.

케투바 **72장** ‘다스 예후디스(Das Yehudis)’에 따르면, 여성은 음란하거나 감각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이는 외경에 해당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지향함.

마스터베이션을 올바르게 할 경우 월경통 완화와 분만 시 해산의 고통 감소에도 도움이 되며, 원치 않는 임신 방지에도 기여함.

그러나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의미함.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중독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야 함.

4) 전통적 성교육에서 13세에 가정을 세움.

고대 유대교에서 결혼 연령은 일반적으로 여자는 12세 하루, 즉 12세가 되는 해의 첫날로 규정됨.

남자는 13세 하루가 되면 부모가 결혼 상대를 정함(창세기 28a 1-2, 고린도전서 7a).

실제로는 여자는 15~16세, 남자는 18세 전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자아이들의 결혼 적령기가 14~20세였던 것에 반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대체로 20세 이후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남(대한성서공회).

열왕기 기록을 통해 즉위 시기와 통치 기간, 그리고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데, 여호아하스는 16세에 결혼하였고, 아몬과 요시아는 14세에 결혼한 것으로 보임.

전기 랍비들은 정확한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12~14세경, 남자는 18세 전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추정함.

후기 랍비들은 자녀들의 혼인 최소 연령을 여성은 만 12세, 남성은 만 13세부터로 규정함.

고대 사회에서는 음행이 빈번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찍 결혼하여 성적 관계를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따랐음.

5) 성경에서 언급된 성적 죄는 허용되지 않는 이성과 동성의 성접촉.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함의 막내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는,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함이 자신의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인 노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노아에게 전가하려 했기 때문임(창세기 난제들/하홍표/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220~242P).

니골라 당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따랐던 영지주의자들이었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으며, 육신은 악(惡)이고 영(靈)

만이 선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육신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가르쳤음.

세속에 물들어도 무방하며,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먹고 마셔도 영혼만 순수하면 된다고 여겼음.

결과적으로 성적 관계를 즐기는 것을 허용했고, 우상숭배를 행했음.

6) 가나안 종교의 특징.

(1) 다신교적 성격과 바알 신앙

가나안 문화의 중심에는 다산을 기원하는 다신교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음.

농경 문화권에서 풍요와 풍년을 기원하는 종교 의식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가나안에서도 다양한 신들이 숭배되었음.

우가릿 신화에 따르면, 바알의 아들이거나 바알 자신이라고도 불렸던 알린(Aliyn) 신은 물을 풍요롭게 공급하는 신으로 알려짐. 그의 별명은 rkb.rpt.

이는 “구름을 타는 자(Rider of the Clouds)”를 의미하며, 바알 신과 동일시되었고, 바알이 강수량을 조절하여 농업을 주관한다고 믿어졌음.

구약성서에서도 야웨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등장함(창 2:5, 시 148:8),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다산 종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함.

(2) 풍요의 여신과 가나안의 신전 문화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함께 풍요의 여신들이 숭배되었음.

후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제작된 작은 여신상들이 가나안 전역에서 발견되었음.

이들 여신상들은 여성의 가슴 부분이 유난히 강조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가옥 주변에서 발견되었음.

성서에서도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흔적이 보임.

예를 들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가정신)을 훔친 사건(창 31:30, 32)은 당시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작은 우상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줌.

또한, 북부 시내 사막의 쿤틸레트 아즈러드(Kuntillet Ajrud)에서 발견된 유물은 기원전 9~8세기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종교가 혼합된 형태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줌.

특히 “사마리아의 야웨와 그의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하시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야웨와 아세라가 함께 숭배되었음을 의미함.

(3) 엘과 바알 신앙

우가릿 문헌에서 엘(EI)은 가나안 만신전의 최고신으로 등장하며, “모든 신의 아버지”로 불렸음.

엘은 자비롭고 온유한 신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여성 파트너인 아티랏(Airat)은 “모든 신에게 생명을 주는 어머니”로 불렸음.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에서 가장 활동적인 신은 바알(Baal)이었음.

바알은 원래 번개를 의미하는 “하닷(Hadad)” 신의 별칭이었으며, 우가릿 신화에서는 바다신 양(Yam)과 싸워 승리하고, 신전을 짓고, 죽음의 신 모트(Mot)와 대결하여 최고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전해짐.

바알 신앙은 단순한 풍요의 신을 넘어 당시 도시국가들의 수호신 역할도 했음.

예를 들어, 바알은 “우가릿의 영주”라는 칭호를 받으며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음.

(4) 아세라와 바알의 여성 파트너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과 그의 여성 파트너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

우가릿 신화에서는 아낫(Anat)이 바알의 아내로 등장하지만, 페니키아(시돈) 문헌과 구약성서에서는 아스타롯(Astarte)이 바알의 여성 파트너로 나타남.

아세라(Asherah)는 엘의 아내로 등장하지만, 후에 바알과 함께 숭배되기도 했음.

이스라엘에서도 가나안의 여신 신앙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음.

성경에서는 신명기 사가들이 지속적으로 아세라 숭배를 비판했으며,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도 아세라는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었음.

(5) 가나안의 성전 문화와 종교 의식

가나안의 신전에서는 성창(sacred prostitute, 신전 창기)들이 제의를 집행했다고 추정됨.

다만, 우가릿 문헌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음.

또한, 가나안에서는 동물 내장점(hepatoscopy)이 유행했음.

이는 동물의 간과 허파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방식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사용되던 기법이었음.

가나안에서는 왕들이 죽은 후 신으로 숭배되는 전통이 있었음.

우가릿 문헌에 따르면, 왕들은 죽은 후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살아 있는 동안에도 신격화되었음.

(6) 창녀의 의미는 세 가지

고대 근동에서 ‘창녀’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음.

첫째, 히브리어로 ‘조나(נָזַר, zonah)’는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는 여성을 의미함.

이 단어는 ‘간음하다’를 뜻하는 동사 ‘자나(נָזַר, zarah)’에서 파생되었으며, 이혼당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직업적으로 종사하기도 했음.

둘째, ‘무녀’는 고대 근동에서 종교 의식과 신탁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성 사제를 의미함.

이들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제의, 예언, 주술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델피 신전에서는 ‘피티아’라는 여사제가 아폴론 신의 신탁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무녀들이 종교 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무녀는 신전에서 종교적 매춘을 행하기도 하였음.

아브람의 고향인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위치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로,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신전 매춘과 같은 관습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종교와 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셋째, ‘거룩한 여성’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 ‘커데샤(קִדְּשָׁה, qedeshah)’라는 표현도 사용되었음.

실제로는 신전에서 종교적 매춘을 행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였음.

이러한 여성들은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

(7) 가나안의 제사와 인신공양

바알 숭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신공양이었음.

성경에서도 왕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왕하 3:27, 23:10)이 등장하며, 가나안 종교에서도 이러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큼.

가나안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축제들이 열렸음.

가을에 열리는 장막절(Sukkot)과 같은 축제에서는 곡물, 포도주, 기름 등을 바치며 바알이 부활하여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음.

(8) 야웨 종교와 가나안 종교의 관계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야웨 종교가 가나안 종교와 혼합된 형태로 유지되었다는 증거가 많음.

대표적인 예로, 여로보암 1세가 벰엘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상(왕상 12:25-33)은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했던 사건(출 32장)도 같은 맥락에 해당함.

즉, 이스라엘의 초기 신앙은 야웨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된 형태였으며, 이것이 후에 예언자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받았음.

(고대 근동의 역사와 종교, 노세영·박종수 / 267~278P)

7) 낙태의 근원과 임신죄의 필요성

고대 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보다는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낙태를 판단하였음.

예를 들어, 약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 우르에서 작성된 고문서에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딸을 폭행하여 유산시킨 경우에 대한 보상 규정이 나타나 있음.

이는 낙태를 법적 개념으로 인식한 초기 사례로 볼 수 있음.

메소포타미아 법전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Hammurabi Code)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특정한 상황에서 여성이 유산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을 개인의 생명권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남성 보호자의 재산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음.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라기보다는 가정과 가문의 일부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낙태 역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또는 남성 중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고대 이집트에서도 낙태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는데, 주로 의학적 문서 속에서 등장함.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들 중 일부에는 낙태를 위한 약초와 혼합물의 조제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낙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함.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종교적 및 의학적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출산을 신들의 축복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음.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했을 경우, 여성들은 다양한 약초나 수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임신을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낙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관대하였으며,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낙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음.

플라톤은 우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 생식을 제안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구 조절을 위한 낙태를 찬성하였으나, 배아에 감각이 생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아가 아직 생명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이후 로마법과 기독교 윤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음.

예를 들어, 스파르타에서는 출생 후에도 아기가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으면 살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동체의 강한 군사적 요구에 기인한 것이었음.

반면, 아테네에서는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낙태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아테네에서도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으며, 낙태 약물과 물리적 방법이 사용되었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함.

초기 로마법에서는 낙태가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남편의 동의 하에 낙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됨.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황제들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음.

기존의 낙태죄 개념은 여성에게만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질적인 책임은 남성에게도 있음.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는 임신죄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임신죄는 남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한 경우,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음.

혼전 성관계를 한 남성이 임신을 유발한 경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원 의무를 지도록 규정해야 함.

레위기 21장 16절에서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라는 규정이 존재함.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해주시기 위해 이 명령을 하셨음.

이러한 임신죄는 성적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유도하며,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실효성이 높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임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성적 행동에 대한 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도하는 사회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임.

8) 중세 기독교에서 자위행위를 금지

(1) 13세기 기독교에서 자위행위를 “자기 남용하는 행위이다”고 금지함.

중세 및 근대 기독교 윤리에서 성행위는 생식(procreation)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명 목적 위반으로 여겼었는데 금지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자위행위는 생명을 창조하지 않으므로, “자연법(natural law)”을 거스르는 비생산적, 자기중심적 쾌락으로 간주되었음.

관련 교리를 주장한 인물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Summa Theologica에서 자위를 “자연법에 반하는 죄”(peccatum contra naturam)로 규정되었음.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 욕망 자체를 죄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욕망의 왜곡된 실천, 특히 생식 목적을 배제한 성행위는 신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고

판단했으며 자위는 정액을 낭비하고, 생식 목적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연 질서에서 이탈된 행위로 보았고 그의 따라서 그는 자위를 “단순히 추한 행위”가 아니라 “신에 대한 반역적 선택”으로 간주했었음.

그래서 아퀴나스는 Summa Theologica II-II, q.154(“On Lust”)에서 성적인 죄를 그 목적과 자연 질서로부터의 이탈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성적 죄를 다음과 같은 위계로 나누었음. 자연법에 따른 죄는 간음, 간통 등 잘못된 상대지만 성행위의 목적(출산)을 따르며 자연법을 거스른 죄(contra naturam)는 자위(pollutio), 동성애(sodomia), 수간(bestiality), 구강성교 등 per os)

이들 죄는 모두 생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중한 죄로 평가되었음.

하지만 13세기(A.D. 1265~1273)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자위가 신체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몰랐고 성적으로 더 문란한 시기이었음.

대부분의 일반인은 글을 읽지 못했으며, 『신학대전』 같은 저서는 성직자나 수도자들만 접할 수 있었음.

따라서 정확한 신학적 기준보다는, 주일 미사와 설교, 고해성사 등을 통해 교회의 도덕 기준을 전달받고 내면화함.

이 때문에 자위행위는 철학적 논증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됨.

“민중은 ‘자위’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하는 성적 행위 = 부끄러움, 죄’라는 감정은 교회의 설교와 고해성사를 통해 내면화되어 있었고 “정액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이는 영적 위험으로 간주됨.”

자위(masturbation)는 그 용어 자체가 당시에는 널리 퍼져 있지 않았고, 대부분 ‘정액 유출(pollutio)’나 ‘밤의 더러움(nocturnal pollution)’ 같은 표현으로 불림.”

특히 남성의 자위는 정액을 ‘생명의 씨앗’으로 간주한 문화 안에서 생명을 낭비하는 죄로 여겨졌는데 중세 사람들은 자위가 구체적으로 왜 나쁜지는 몰랐지만, ‘혼자 하는 성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라는 감정은 교육받고 내면화되며 고해성사에서 반드시 자백해야 하는 죄로 간주됨.

그래서 고해성사 제도: 자위, 간음, 매춘 이용 등은 모두 고해 대상. 죄 고백 없이는 성찬 참여 불가했고. 설교를 통한 규제는 성직자들이 주일 미사에서 성적 절제를 반복적으로 설교했음.

시골 마을은 수확절, 축제, 야간 모임에서 혼전 성관계나 간음이 발생했었으며 이웃 간 소문은 곧바로 도덕재판 또는 교회 감찰 대상이 됨.

중세 유럽 인구의 90% 이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엄격한 결혼 규범이 있었지만, 혼인 전 성관계, 근친혼, 간음 등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남녀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것조차 의심받았으며, 밤중에 만난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농번기와 축제 기간(예: 수확절)에는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만남이 있었고, 일부는 성적 접촉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에서 누구와 누구가 너무 자주 같이 있는 것 같아...”와 같은 소문은 곧바로 교구 신부나 지역 사법관에 전달되어 도덕재판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장터와 도시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자, 상업과 오락, 유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여인숙, 공연자, 이방인, 술집, 장돌뱅이, 외지인 유입으로 매춘이나 일시적 성 접촉 증가하였고 특히 여인숙은 흔히 매춘 장소로 이용되었고, 일부 여성은 여행객을 상대로 성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었으며 일부 도시는 ‘여성 단독 외출 금지’나 ‘밤 9시 이후 여성 통행 제한’ 같은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음.

여성들은 가난 때문에, 미혼모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매춘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남성들은 결혼 전이나 결혼 중에도 공공연히 성적 욕망을 분출할 공간을 찾았음. 그러나 성적 행위는 단순한 육체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관련된 몸의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여성은 자위나 성욕을 금욕의 실천을 통해 통제해야 하는 존재로 강조되었음.

순례지에서는 종교적 성지 순례가 많았지만, 순례 여정 중 성적 유혹과 일탈도 빈번하고, ‘순례자 여성’을 가장한 매춘 여성이 성지 인근에 상주.

교회는 성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들였고, 특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스페인), 캔터베리(영국), 로마, 예루살렘 등이 주요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단체 이동이 아니라 개인적이며 장거리 여행이었기에, 여정 중에 성적 일탈이 빈번했습니다.

‘순례자 여성’을 가장한 매춘 여성이 성지 주변에 상주하며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를 “순례의 목적을 더럽히는 유혹”으로 보고 특별 감시와 설교를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교회는 성적 유혹을 “영혼을 더럽히는 악”으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함.

가톨릭 교회는 매춘을 “혼전 성행위 중 가장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하였고 아퀴나스는 매춘을 포함한 모든 ‘목적 없는 성행위’를 심각한 죄로 보았음.

감찰단 조직: 수도원·주교청이 도덕 감찰단을 운영해 성적 일탈이나 이단 행위를 감시. 공무원이 매춘 여성 명부 작성, 위생검진까지 실시하기도 함.

성직자나 수도사가 매춘에 연루될 경우 파면 또는 추방 조치도 존재.

일부 지역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감지하기 위해 이웃들이 증언하고 벌금을 부과함.

그러나 중세 유럽 일반사회는 성에 대한 공식적 담론은 금기였으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꽤 현실적으로 성이 존재 자체이었음.
 매춘은 제도적으로 관리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가 아닌 도시 당국이 관리하는 윤리구역도 존재함
 중세 도시(특히 12~14세기 이후)는 매춘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했었음.
 파리는 매춘업 허가증 제도, 특정 구역 허용, 이탈리아 피렌체, 시에나, 베네치아는 외곽이나 지정구역에 공창허용 그리고 독일 남부 도시는 노란 천이나 벨 표식으로 구분을 했었음.
 일부 신학자들은 “매춘은 마치 시궁창과 같다. 시궁창이 없다면 도시가 악취로 뒤덮이듯, 매춘이 없으면 더 큰 죄악이 넘친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필요악으로 매춘을 용인

(2) 자기 탐닉(Self-indulgence)과 정욕의 죄

자위는 자기 중심적인 쾌락 추구로 해석되어, 절제하지 못한 정욕(lust)의 표현으로 여겨졌음.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는 고린도전서 말씀(6:19-20)을 근거로, 성적인 자기 남용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석되었음.

그러나 헬라어 "아카타르시아(ἀκαταρσία)"는 불결함, 부정함, 도덕적·영적 더러움을 뜻하며, 성경에서는 종종 "음란" 또는 "부정한 행위"로 번역됨.

또한 "아셀게이아(ἀσέλγεια)"는 방탕, 음란, 제멋대로 방종함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음란", "방탕한 행실", "정욕에 이끌린 삶" 등으로 번역됨.

즉, 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저버리고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임

이 단어들은 부도덕한 마음 상태, 절제 없는 정욕,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적 방종을 뜻함

(3) 건강과 도덕의 쇠퇴 경고

① 역사적 배경

과학혁명 이후 초기 의학 발달기였으나, 현대적 의미의 임상 연구나 통계적 검증이 거의 없는 시대였음.

사람의 질병 원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성과 관련된 행위는 ‘자연 질서’와 ‘신의 섭리’ 속에서만 허용된다는 기독교 윤리관이 강하게 작용함.

의학적 주장은 종종 종교적 금기와 결합해 과장되거나 절대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② 대표적인 의학적 주장

사무엘 오거스트 뒤틀러(Samuel-Auguste Tissot)

저서 : 《자위의 영향에 대하여》(L'onanisme, 1760)

주장 : 자위는 체액(정액)의 과도한 소모를 초래하여 신체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견해임.

근거 : 정액은 뇌와 신경계에 중요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잃으면 체력 저하, 시력 감퇴, 기억력 저하, 정신 이상, 조기 사망 등이 발생한다고 서술함.

이 주장은 당시 유럽 전역과 미국에 큰 영향을 끼쳐, 자위를 ‘의학적으로도 유해한 행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됨.

③ 의학적·문화적 결합

교회 윤리 : 성은 혼인과 출산 안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라는 인식의 존재.

의학 지식 부족 : 세균, 호르몬, 뇌과학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체액 소모 = 생명력 소모라는 고대적 이론의 지속.

사회적 교육 : 청소년과 청년에게 자위를 막기 위해 ‘자위 방지 장치’(쇠고리, 장갑, 특수 잠옷), ‘자위 예방 매뉴얼’ 등이 학교·가정에서 사용된 사례의 존재.

④ 왜 오류였는가

검증 부재 : 뒤틀러의 주장은 해부학적·생리학적인 근거 없이, 일부 환자의 증상을 ‘자위 때문’이라고 추정한 관찰 사례에 기반한 오류.

인과 관계 오판 : 피로·우울·질병 같은 증상이 우연히 자위를 하는 시기와 겹쳤을 뿐, 자위가 원인이 아닌 사실.

편견 강화 : 기존 종교·문화적 금기와 결합해 과장된 공포 서사를 만든 현상.

⑤ 현대 의학의 입장

오늘날 의학 연구에서는 적절한 범위의 자위가 신체·정신 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
효과

성적 긴장 해소, 스트레스 완화, 숙면 도움, 골반저근 강화, 일부 연구에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 가능성, 성적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능력 향상.

단, 과도하거나 강박적 자위는 일상·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의 필요성 존재.

(4) 요한 웨슬러가 자위를 금지하는 이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자위를 금지한 이유에는 세 가지의 배경이 있음

① 성경적·윤리적 이유

웨슬리는 성(性)을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부부 사랑을 나누도록 주신 선물”로 보았음.

따라서 혼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간음, 음란, 자위 포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함.

그의 글 **Thoughts on the Sin of Onan(1767)**에서, 창세기 38장의 오난 이야기를 자위나 비생산적 성행위의 경고로 해석하며, “쾌락을 목적 삼는 성행위는 곧 자기 영혼을 해치는 행위”라고 명시함.

② 의학적·건강적 이유

웨슬리는 당시 유럽에 널리 퍼진 사무엘 오거스트 뢰러(Samuel-Auguste Tissot)의 주장에 영향을 받음.

뢰러는 자위가 체액 소모로 인해 신경 쇠약, 시력 저하, 정신 질환을 초래한다고 봄.

웨슬리는 여기에 신학적 경고를 덧붙여, 자위가 “몸과 영혼 모두를 병들게 하는 행위”라고 설교함.

18세기에는 의학적 근거보다 관찰 사례와 종교적 도덕률이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에, 자위에 대한 과도한 공포 담론이 형성됨.

③ 도덕·영적 훈련의 관점

웨슬리는 감리교 설교에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성화(holiness)의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함.

자위는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만, 영적·도덕적 자제력을 약화시키는 자기중심적 습관이라고 봄.

그는 젊은 신자들에게 ‘자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 금욕, 봉사 활동, 육체 노동을 권함.

(5) 후대 감리교·메소디스트에 미친 영향

웨슬리의 금욕적 성윤리는 감리교, 메소디스트, 웨슬리안 복음주의에서 수 세기 동안 이어짐.

19세기 미국 감리교 청년단체들은 웨슬리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청결 서약(Purity Pledge)’ 제도를 운영하며, 자위를 포함한 모든 혼외 성행위를 금함.

일부 기독교 교육 교재에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자위는 영적·신체적 타락을 초래한다”는 웨슬리식 표현이 그대로 수록됨.

8). 혼전순결(婚前純潔, Premarital Chastity)의 기원

혼전순결(Premarital Chastity)의 개념은 고대시대에 여성을 사유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 가문의 여성은 깨끗해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성한테 순결을 강요하셨습니다.

(1) 고대 사회에서의 혼전순결 개념

혼전순결은 고대부터 사회 질서 유지, 가문의 명예 보호, 재산 상속 안정화 등의 이유로 강조되었음.

① 메소포타미아 문명 (B.C. 3000~B.C. 500)

함무라비 법전(B.C. 1754년경)에서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며, 혼전 성관계를 한 여성은 처벌받을 수 있었음.

일부 기록에서는 처녀성을 유지한 여성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으며, 순결한 여성은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와 관련되었음.

이는 남성들이 여성의 첫 남자로 되기를 바랐음.

또 여성이 혼인을 못하면 생계를 위해 음부로 할 수밖에 없었음.

② 고대 이스라엘 및 유대교 (B.C. 1500~A.D. 70)

구약성경에서는 혼전순결이 중요한 윤리적 규범으로 강조됨.

신명기 22:13-21에서 신부가 결혼 전에 순결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언급.

레위기 21:13-14에서는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규정.

유대교에서 순결은 가문의 명예와 관련되며,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신앙적 의무로 여겨졌음.

이는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성의 질과 자궁에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

왜냐면 위생적으로 마스터베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결혼만이 성적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

③ 고대 그리스와 로마 (B.C. 800~A.D. 476)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의 순결보다는 절제(temperance)를 강조했으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절이 요구됨.

로마 법과 사회에서 결혼 전 여성의 순결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일부 여성들은 '베스타 처녀(Vestal Virgins)'로서 순결을 지키며 신전에서 섬겼음.

남성에게는 비교적 자유로운 성적 규범이 허용되었지만, 여성은 엄격한 규범을 적용받았음.

(3) 교부들의 가르침과 중세 및 근대 기독교 사회

성 아우구스티누스(A.D. 354-430)

혼전 성관계를 죄악으로 규정하며, 성은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성은 출산을 위한 것이며, 결혼 외 성행위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간주됨.

토마스 아퀴나스(A.D. 1225-1274)

결혼 전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혼전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라고 강조.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 혼전순결을 강조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회적 비난과 교회 내 제재를 받음.

그러나 많은 교황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며 간음, 남색, 성직매매, 강간, 살인을 일삼고 술에 취해 지냈음.

보니파시오 8세(1294-1303) - 성직 매매, 부도덕, 우상 숭배, 마술을 행했고 그리스도를 위선자라고 주장하여 1302년 Unam Sanctum에서 "천주교만이 유일한 참 교회이며, 천주교 밖에서는 구원이 없고, 교황에게 순복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조건"이라고 선포함.

요한 23세(1410-1415) - 37명의 증인에 의해 사통, 간음, 근친상간, 남색, 성직매매, 도적질, 살인 등의 죄로 규정되었고 300명의 수녀들을 범한 것으로 입증됨.

비오 2세 - 첩들을 집에 가득 두어서 여러 사생아를 둔 것으로 알려짐.

바오로 2세 - 다수의 첩을 두고 부도덕한 생활을 함.

인노센트 8세(1484-1492) - 여러 여인에게서 16명의 자녀를 둠.

알렉산더 6세(1492-1503) - 바노자 데이 카타네이라는 여성과 그녀의 딸 로사와 관계를 가졌으며 로사와의 관계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중 두 자매와 딸(루크레티아)과 공개적으로 근친상간 생활을 하며 딸과의 사이에서 한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1501년 10월 31일, 바티칸에서 섹스 잔치를 개최함.

레오 10세(1513-1521) - 8세에 대수도원장이 되었으며, 13세에 추기경이 되어 무한대의 쾌락을 즐기며 부패한 생활을 함.

콘스탄스 공의회(1414-1418)의 부패-교회 개혁을 위한 콘스탄스 공의회 기간 동안, 거리와 셋집에서 공개적으로 영업한 창녀의 수가 700명에 달했다고 기록됨.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콘스탄스로 몰려들었음.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음.

빅토리아 시대(A.D. 1837-1901):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하면서 도덕적 엄격함과 성적 금욕을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 형성.
여성은 순결과 정숙함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이 강해지며, 여성의 성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1839년 –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 사진술 발명

초기 사진술 발달로 성적 미디어 사진이 등장.

성적 이미지를 기록하고 유포하는 것이 가능해짐.

한 보고서에 따르면 **1839년** 인구 **200만** 명의 런던에 **8만** 명의 매춘부가 존재.

이는 런던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당시 대도시에서 성매매 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음을 의미함.

깨끗한 처녀가 가장 소망스러운 상품이 되었으며, 가난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매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1840년대 – 성적 미디어 초기 발전과 성적 억압 강화

1842년 – 젠틀맨스 매거진(Gentleman's Magazine) 삽화 수정

18세기까지 묘사되던 남성의 성기가 삭제된 삽화 등장, 성기 표현이 점차 금기시됨.

1843년 – 성 도덕과 검열 강화

영국 정부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고, 성적 내용이 포함된 인쇄 매체를 음란물로 간주하여 처벌하기 시작함.

신문과 잡지에서 성과 관련된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강해짐.

1850년대 – 성적 미디어 문학과 매춘 증가, 이중 잣대 심화

1857년 – 영국 최초의 음란물 단속법 제정 (Obscene Publications Act)

성적 표현이 담긴 책, 사진, 삽화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첫 번째 법률.

성적 미디어 문학과 음란 출판물이 비밀리에 유통되기 시작함.

1850년대 중반 – 매춘 산업 급증

런던에서 약 **8만** 명의 매춘부 활동(런던 경찰 기록 기준).

노동계층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매춘에 종사하는 경우 증가.

한편, 상류층 여성들은 여전히 '순결'을 강조받으며, 남성들은 공공연하게 매춘을 이용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도덕성을 내세움.

1860년대 – 성적 미디어 산업 발전과 성매매 규제 강화

1864년, 1866년, 1869년 – "Contagious Diseases Act" (성병 방지법) 제정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매춘부들에게 강제 검진을 요구하는 법률 제정.

이 법은 남성이 아닌 여성들에게만 적용되어 성차별적 논란이 됨.

조셉린 버틀러(Josephine Butler) 등의 여성운동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개혁 운동을 전개함.

1860년대 후반 – 성적 미디어 문학 유행

『메모아즈 오브 어 우먼 오브 플레저』, 『The Pearl』 등 에로틱 문학 작품이 비밀리에 출판됨.

프랑스와 영국에서 성적 미디어 그래픽 사진이 제작되어 귀족과 부유층 사이에서 유통됨.

1870년대 – 성적 미디어 문학 전성기와 매춘 단속 강화

1870년대 중반 –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매춘 여성들이 겪는 착취 문제가 점점 대두됨.

성매매를 단속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매춘부들이 강제 검진을 받는 일이 빈번해짐.

1879-1880년 – 『The Pearl』 출판

익명으로 출판된 성적 미디어 잡지,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포함.

당시 사회적으로 금기된 주제를 다루며 비밀리에 유통됨.

1880년대 – 동성애 범죄화와 성매매 단속 강화

1885년 – 동성애 처벌법 제정 (Criminal Law Amendment Act)

16세 미만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금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금지하고, 매춘부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증가.

동성애 행위가 '자연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Nature)로 규정됨.

발각될 경우 **2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

이는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철저히 억압하고, 동성애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

1880년대 후반 – 공공연히 도덕적 청렴을 강조하던 빅토리아 시대 남성들이 여전히 매춘과 성적 미디어를 소비.

상류층 여성들은 ‘순결’과 ‘도덕성’을 강요받은 반면, 노동계층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성 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이중적 구조가 고착됨.

1888년경 – 『My Secret Life』 출판

익명의 저자가 성적 경험을 기록한 자서전, 영국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 포함. 금서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행.

1890년대 초반 – 성적 미디어 단속 강화

영국과 프랑스에서 성적 미디어 문학과 사진 제작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성적 콘텐츠가 점점 더 비밀리에 유통되며, 불법 출판물이 증가.

1895년 – 성매매 단속 강화

경찰이 성매매 여성들을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함.

그러나 여전히 상류층 남성들은 은밀하게 성 산업을 이용하고 있었음.

1897년 – 빅토리아 여왕이 매춘, 성적 미디어, 음란물 단속 강화를 지시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극대화됨.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비공식적으로 성 산업을 소비하며 위선적인 태도를 유지.

상류층 여성의 성문화

여성의 성적 욕망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음.

중산층 부인들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순수하고 안전한 존재’로 여겨졌음.

자연적인 욕구는 방탕과 사악함으로 이어진다고 간주됨.

‘가정부인의 순수함’이 권장되었으며, 여성의 성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음.

남편들은 부인과의 성관계를 월 1회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즉,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 여성들은 성적 존재가 아닌 ‘순결한 어머니이자 가정의 수호자’로만 인식되었음.

1901년 – 빅토리아 여왕 사망, 에드워드 7세 즉위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엄격함이 점차 완화되며,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변하기 시작함.

매춘과 성적 미디어 단속이 여전히 유지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점점 더 개방적인 분위기로 변함.

3. 독립주의 성윤리[Together Belief Sexual Ethics)란?

독립주의 성윤리는 성[性)이 개인의 쾌락이나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협력과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단순한 금지나 방임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 절제와 조화, 사랑과 존중의 균형을 이루는 성적 가치관을 강조하며, 성적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 독립주의 성윤리의 목표

◆ 독립주의 성윤리는 성을 단순한 욕구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 ◆ 성적 신중결정권과 신뢰결정권을 실천하여 책임 있는 성적 행동을 강조함.
- ◆ 자유 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적 행동에 대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 ◆ 혼전순결을 통해 신뢰와 책임이 바탕이 된 성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교육함.
- ◆ 삼각감찰 원리를 적용하여 올바른 성 윤리를 확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함.
- ◆ 건강한 성교육과 성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음.

결론적으로, 독립주의 성윤리는 성적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성 윤리 체계입니다. 단순한 금욕이나 방종이 아닌, 성숙한 판단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독립주의 성 윤리 강령

제1조(성의 존재론적 의미)

성은 단순한 생리적 행위나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존재 간의 정서적 연결과 신뢰를 표현하는 언어로 이해함. 독립주의는 성을 관계의 실존적 고백이자, 상호 연합을 구현하는 통로로 봄.

제2조(성적 신중결정권의 실현)

성적 결정은 타자의 감정, 신뢰, 상처를 포함한 맥락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그 결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나는 원한다"보다 "이 선택이 타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를 먼저 질문해야 함.

제3조(성적 신뢰결정권의 존중)

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정서적 안전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 수 있을 때만 가능함. 신뢰 없는 동의는 강요이며, 감정 없는 허락은 침묵된 폭력임.

제4조(정서적 연결의 우선)

모든 성적 행위는 심리적 스킴(정서적 달음), 즉 존재적 품음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신체적 접촉 이전에 감정적 소통, 마음의 안식, 신뢰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계적 안전지대가 마련되어야 함.

제5조(로이소울의 성 윤리)

성적 결정과 표현은 단순한 동의나 행위가 아닌, 상대 존재를 감찰하는 시선(Roi)과 정서적 응답 능력 위에서 실현되어야 함.

① 성은 육체보다 마음을 먼저 응시하는 윤리적 감찰에서 출발함.

② 성적 행위 이전에 상대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상태를 살피는 '로이소울의 시선'이 선행되어야 함.

③ 로이소울 윤리는 신뢰 없는 동의, 감정 없는 접촉, 맥락 없는 성 표현을 윤리적 침묵 또는 감정 폭력으로 간주함.

④ 참된 성적 표현은 말보다 응시와 기다림, 욕망보다 공감과 조율에서 가능해짐.

⑤ 성은 대상이 아닌 존재를 향한 응시이며, 성적 신중결정권과 성적 신뢰결정권은 그 응시의 깊이와 감정적 이해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함.

제6조(욕망의 절제와 감사)

성적 욕망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며, 존재의 일부로 인정되나, 타인의 희생이나 불편 위에 세워질 수 없음. 상대의 수고, 감정, 경계를 고려하며 표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사와 절제의 윤리를 배워야 함.

제7조(성적 표현의 책임성과 조율)

성적 표현은 쌍방의 동의와 이해를 전제로 하며, 감정과 상황, 관계적 경계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함. 모든 성적 결정은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신중한 소통의 결과이어야 함.

제8조(성미디어에 대한 기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성미디어의 시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배우의 자발적 동의 아래 제작된 성미디어에 한해 조건부 허용됨. 타인의 인격과 몸이 도구화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① 장애인도 성적 욕구가 일어날 경우 해소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성미디어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단, 배우자와 만날 때에는 충실히 사모할 것을 전제로 함.

② 비장애인으로 결혼 전까지 성미디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청 후 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간, 추행, 폭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는 경우 시청을 삼가야 함.

제9조(성의 공동체적 책임성)

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자 공동체적 책임의 일부임. 성적 선택은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성찰하며 이루어져야 함.

제10조(이분법과 폭력의 거부)

남성이 성적 표현의 주체이고 여성이 대상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며,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몸과 감정이 욕망의 배출구로 전락되는 구조를 단호히 반대하며. 여성은 성적

표현의 도구가 아니하나, 본인이 원해서 성적 표현을 했을 경우 이는 권리이자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원칙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제11조(결혼 전제의 신중 교육)

- ① 혼전 성관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법적 결과를 명확히 인식함.
- ② 성관계는 감정적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③ 결혼 전제의 신뢰 기반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복사, 공식 서약 등 상호 책임의 증거를 남기는 실천을 권장함.
- ④ 남성은 혼전이라도 피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임신 발생 시 법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함.

제12조(여성과 취약계층의 성 보호)

- ① 여성은 성보호와 자유성 그리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원칙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② 아동·청소년은 성적 보호의 최우선 대상이며, 조기 성적 노출이나 착취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
- ③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성적 권리와 보호를 균형 있게 인식하며, 이들의 성적 표현은 존엄과 신뢰 안에서 존중되어야 함.

제13조(여성의 역할과 중요성)

여성은 단순히 성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임. 정서적 공감능력, 돌봄의 감수성, 생명을 품는 태도는 독립윤리 안에서 핵심적 덕목으로 간주됨. 여성의 자기표현은 억압이 아닌 연합과 조율의 자산이며, 사회는 이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함.

제14조(동성애와 제3의 성에 대한 입장)

독립주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남성과 여성의 상호 연합적 구조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동성 간의 성적 결합이나 생물학적 성별 이외의 제3의 성 개념은 독립적 연합 구조와 상충됨.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나, 윤리적 실천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연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제15조(임신과 출산의 윤리)

- ① 생명의 탄생은 남성과 여성의 존재적 사랑과 정서적 연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없는 정자·난자은행을 통한 임신 시도를 금지한다.
- ② 아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신뢰 안에서 함께 맞이해야 할 존재로 존중한다.
- ③ 시험관 시술은 부부 간의 신뢰와 연합이 선행된 경우에 한해 윤리적으로 허용하며, 생명을 기능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④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며, 남성 또한 정서적·실질적으로 동반해야 할 공동의 여정으로 이해한다.
- ⑤ 모든 생명 탄생의 결정에는 사랑과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독립윤리의 핵심으로 삼는다.

제16조(낙태 및 임신 책임 윤리)

- ①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단,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윤리적 판단 아래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③ 남성이 책임 없는 성적 행위로 여성을 임신시킨 경우 ‘임신죄’로 간주하며, 아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위로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 ④ 남성이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으로 처벌한다.
- ⑤ 생명을 잉태하게 한 자는 해당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며, 이는 금전뿐 아니라 정서적 돌봄과 실질적 참여를 포함한다.
- ⑥ 독립주의는 성을 생명과 직결된 결정으로 간주하며, 성적 결합에는 반드시 윤리적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부칙: 성 윤리 실천 지침]

- ① 성적 행위는 쌍방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말보다 관계의 맥락에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함.
- ② 상대방의 동의는 신뢰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단순한 허용은 윤리적 정당성이 없음.
- ③ 성적 욕망의 표현은 절제되어야 하며, 관계 안에서 감사와 배려로 조율되어야 함.
- ④ 성은 중독적 행위나 단순감정 배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타인을 위한 성행위하는 것과 상호 위로와 회복의 통로로 기능해야 함.
- ⑤ 성 윤리 위반 행위는 타자의 존재를 도구화하는 폭력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른 윤리적 성찰과 공동체적 조치가 필요함.

4. 독립주의 성교육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성적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단순한 금기나 억압이 아닌, 자유 유연성[**Freedom Flexibility**]을 기반으로 절제와 조화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

성적 충동을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조절하고, 관계 속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유도.

성적 미디어 및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

5. 독립주의 성교육의 이론

1) 삼각감찰의 원리[Triangular Observation Principle**]**

삼각감찰의 원리는 개인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균형 잡힌 성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자[**大我, The Independent Self**], 동의사회[**大信, The Committed Relationship**], 삼의사회[**大他, The Ethical Relationship**]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원리는 성적 자기조절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신체적 욕구, 감정, 이성적 판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① 독자[大我, The Independent Self**] - 자기 이해와 성숙**

개인이 자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멘토[부모, 스승, 롤모델]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사랑, 안정감, 신뢰를 배우며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형성.

신체적 욕구와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을 길러, 성적 신중결정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② 동의사회[大信, The Committed Relationship**] - 관계 속에서 배우는 성윤리**

부모, 스승,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

"성은 부끄럽거나 금기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윤리적 기준 안에서 건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강조.

③ 삼의사회[大他, The Ethical Relationship**] - 사회적 책임과 조화**

성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대방과의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단계.

성적 신중결정권을 행사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삼각감찰의 원리 적용

삼각감찰의 원리는 성적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 관계 속에서의 배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성적 결정을 내릴 때 감정과 이성, 그리고 사회적 윤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유 유연성[Freedom Flexibility**]란?**

자유 유연성이란 규칙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규율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금지나 강요가 아니라,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성숙한 판단을 내리고, 삶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자유 유연성의 핵심 요소

① 규율 안에서의 자유[Living Freely within Principles]

규칙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태도.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지키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찾는 것.

② 자신의 한계 인정[Accepting One's Limitations]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실수하거나 부족할 수 있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강압적인 금지가 아닌 자율적인 조절[Self-Control without Force]

성적 욕구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절하며 실천하는 태도.

④ 책임 있는 자유[Responsible Freedom]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자유.

자유를 누리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함.

⑤ 균형 잡힌 가치관 형성[Balanced Values in Life]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

(2) 자유 유연성과 성 윤리적 적용

자유 유연성은 특히 성 윤리와 관련하여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 ◆ 성적 충동을 무조건 억누르지 않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
- ◆ 자기 몸과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함.
- ◆ 성적 결정을 할 때,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함.
- ◆ 강요나 억압이 아닌, 개개인의 이해와 성숙을 바탕으로 성 윤리를 교육해야 함.

결론적으로, 자유 유연성[Freedom Flexibility]은 "자유와 책임, 절제와 조절, 이해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가치관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성숙한 판단을 내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입니다.

3) 언코[UniComp, 합우]의 개념

✓ 정의

언코[UniComp]는 "Unity[연합] + Companion[동반자]"의 합성어로, 남성과 여성이 상호 협력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개념임.

개인의 독립성과 상호 협력을 동시에 인정하며, 남성과 여성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함.

✓ 핵심 개념

① 조화로운 협력[Harmonious Cooperation]

남성과 여성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협력하는 관계임.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② 상호 책임[Shared Responsibility]

언코 관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함.

성적 관계에서도 책임을 공유하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함.

③ 연합된 동반자[Unity in Partnership]

단순한 개인 중심이 아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함.
 성적 행위도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연코 관계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

✓ 독립주의적 시각

연코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가치 속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함.
 성적 관계 역시 연코의 개념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성 윤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책임을 다하는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

4) 로이소울(Roi-Soul)의 의미

로이소울(Roi-Soul)은 히브리어 ‘로이(רוי, Roi)’라는 말로 ‘보다’, ‘주목하다’,
 ‘감찰하다’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며,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의 존재와
 욕구를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적 욕구와 표현을 단순히 억제하거나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표현이 자기 자신과 타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서적으로
 감찰하는 방식으로 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적용 원리: "보는 것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구분	내용
1. 감정 기반의 응시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함. 성적 감정의 밑바닥에 외로움, 인정욕구, 소속감의 결핍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시킴.
2. 타자 중심의 시선 훈련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대신, 그 사람의 감정과 삶의 배경을 상상하고, "그 사람도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함. 포르노 시청이나 자위 등에서 "내가 지금 보는 장면이 타인의 존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질문하게 함.
3. 정서적 통합 훈련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나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질문하게 함.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도록 도와줌. 감정-욕구-관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자기 인식 훈련을 강조함.

5) 성적 신중결정권[Sexual Prudent Decision-Making]과 성적 신뢰결정권[Sexual Trust Decision-Making]

(1) 성적 신중결정권[Sexual Prudent Decision-Making]

① 정의

성적 신중결정권이란 개인이 성적 행동을 결정할 때 즉흥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충분한 숙고와 신중한 판단을 거쳐 결정할 권리를 의미함.
 단순한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절제, 도덕적 기준을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임.

② 핵심 개념

Ⓐ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함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

성적 행위가 자신의 삶과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숙고한 후 결정해야 함.

Ⓑ 윤리적 책임과 가치 기반의 결정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선택을 해야 함.
성적 결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신뢰,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해야 함.

㉟ 미래 지향적 사고를 통한 선택

단기적인 만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의 안정과 신뢰를 고려하여 행동해야 함.

혼전순결, 성적 절제, 건강한 연애관계 등이 신중결정권의 실천 방식임.

✓ 독립주의적 접근:

성적 신중결정권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함.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성적 결정을 내리도록 교육해야 함.

(2) 성적 신뢰결정권 [Sexual Trust Decision-Making]

① 정의

성적 신뢰결정권이란 성적 행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함.

단순한 개인적 동의[consent]가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trust]를 바탕으로 성적 결정을 내리는 개념임.

① 핵심 개념

㉠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신뢰 기반의 결정

성적 행위가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어서는 안 되며, 상대방과 신뢰를 쌓은 후에 결정해야 함.

신뢰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

㉡ 상대방과의 약속과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

성적 신뢰결정권은 상대방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상대방의 감정, 신념, 가치관을 존중하며, 상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책임 있는 관계 형성과 장기적인 안정성 고려

결혼과 같은 안정된 관계 안에서 성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안정이 기반이 된 관계 안에서 신뢰 속에 성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강조함.

✓ 독립주의적 접근

성적 신뢰결정권은 단순히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결정이 아니라, '이 관계가 신뢰할 만한 관계인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신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듦.

따라서, 성적 결정은 "단순한 허락[consent]"이 아니라, "깊은 신뢰[trust]"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6) 혼전순결교육의 의도와 방법

① 혼전순결교육의 핵심 의도

혼전순결은 단순한 금지 개념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임.

결혼할 상대와만 성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무분별한 성관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님.

신뢰와 헌신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지향하며,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혼전순결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임.

② 혼전순결교육의 방법

㉠ 강압이 아닌 자율적 선택 유도

강제적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절제와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성적 신뢰결정권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함.

㉡ 윤리적·도덕적 책임 강조

성적 행위가 관계의 지속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함.

혼전 성관계가 결혼 이후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책임감을 강조해야 함.

㉢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가치관 확립

성적 행위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책임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올바른 성윤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교육해야 함.

7) 낙태와 임신 책임 개념

① 낙태죄의 한계

기존의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법적 책임을 부과했지만, 남성도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함.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가 필요함.

② 임신죄[Pregnancy Responsibility Law]의 필요성

남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한 경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법적·경제적 의무를 부과해야 함.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

성적 행동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지 않고, 남성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함.

③ 성경적 근거와 법적 적용

성경 레위기 21:16을 통해 히브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더 강한 책임을 요구했었음.

현대 사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남성이 성적 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④ 사회적 변화와 실천 방향

낙태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성적 행동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도하여, 책임 있는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음.

낙태죄를 폐지하기보다는 임신죄를 신설하여 남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8). 마스터ベーション의 필요성과 효과

(1) 자위행위의 필요성

① 성적 욕구의 자연스러운 표현

성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며, 이를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

② 강박적인 억압을 방지

성적 충동을 억압할 경우 오히려 불안감과 강박관념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③ 자기조절 능력 향상

무분별한 성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적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음.

④ 자신의 신체와 성적 반응에 대한 이해

자위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반응과 신체적 감각을 이해하게 되며, 이는 이후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됨.

(2) 자위행위의 효과

① 신체적 효과

Ⓐ 성적 긴장 완화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해 신체에 축적된 긴장을 해소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

Ⓑ 호르몬 조절

자위행위 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향상됨.

Ⓒ 숙면 유도

자위행위를 통해 분비되는 프로락틴[Prolactin] 호르몬이 긴장을 낮추고 수면을 돕는 역할을 함.

Ⓓ 생식기 건강 유지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여성의 경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② 심리적 효과

Ⓐ 우울증 예방 및 정서적 안정

엔도르핀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음.

Ⓑ 성적 신중결정권의 연습

성적 신중결정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충동적인 성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성적 강박과 죄책감 해소

성적 욕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기회를 가짐.

Ⓓ 자존감 향상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건강하게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됨.

③ 사회적 효과

Ⓐ 원치 않는 성적 행동 예방

성적 충동을 건강하게 해소함으로써 충동적인 성행위나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

Ⓑ 이성 관계에서의 절제력 형성

성적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 이성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음.

Ⓒ 성적 미디어 의존도 감소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성적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④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독립주의적 접근

Ⓐ 성적 신중결정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함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성적 신중결정권의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행위를 지양하고 신체적·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중독 예방과 균형 유지

과도한 자위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야 함.

㉟ 성적 욕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성적 욕구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되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함.

㊦ 언코(합우)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 과정

자위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이후 건강한 언코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9) 성 미디어의 필요성과 역할 및 윤리적 제작과 관리 방안

(1) 필요성과 역할

① 성적 충동 조절을 위한 도구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며, 이를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함.

성 미디어는 이러한 조절을 돕는 수단 중 하나로, 성적 긴장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억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② 이성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 완화

생식기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성 미디어가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성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강박을 가지지 않도록 돕기 위함임.

신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예방할 수 있음.

㉠ 이성의 특정 부위를 왜 보고 싶을까?

㉡ 친밀감의 표현으로서의 신체적 관심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는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연결감을 느끼고자 하는 심리적 표현일 수 있음.

인간은 가까운 사람의 신체를 보면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본능적으로 신뢰와 애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탐구 욕구와 금기의 영향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탐구 욕구를 가지고 있음.

특히 금기시되거나 비밀스럽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성교육이 부족하거나 성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더 강해질 수 있음.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억제되지 않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성적 자극 반응 연구 결과

㉤ 여성의 성적 자극 반응

여성은 주로 분위기와 감정적 연결을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

이는 여성의 대뇌피질 중 측두엽, 변연계, 후각 고랑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음.

변연계는 기억, 감정, 성욕, 식욕과 같은 복잡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며, 자유로운 분별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함.

남성보다 시각적 자극에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학습의 영향도 받을 수 있음.

여성은 촉각적, 감정적, 심리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 접촉과 관계 형성을 통해 성적 친밀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일부 여성은 시각적 자극에도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특정 신체 부위(남성의 근육, 신체 비율, 생식기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음.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이미지나 신체적 매력에 반응하지만, 개인차가 크고 정서적 연결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개인차가 존재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적 특징에 대한 관심과 심리적 욕구가 있을 수 있음.

㉞ 여성의 성적 자극 반응과 특징

- ㉟ 정서적 연결과 성적 만족도
- ㊱ 성적 각성의 속도
- ㊲ 배우자의 태도와 반응
- ㊳ 신뢰와 안전감
- ㊴ 절정(오르가즘)과 만족도
- ㊵ 애정 표현과 성적 흥분도

㉟ 남성의 성적 자극 반응과 특징

- ㊱ 생리적(Physiological) 측면
- ㊲ 심리적(Psychological) 측면
- ㊳ 사회적·문화적(Socio-Cultural) 측면

㊴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공통점

남성은 대체로 즉각적인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은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관계적·정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적 반응이 보다 복합적인 감정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여성도 특정 신체적 특징에 대한 시각적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개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결론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적 특징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심리적 욕구를 가질 수 있음.

다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시각적 반응이 강한 반면, 여성은 심리적·정서적 요인과 연계된 성적 반응이 더 클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적 관심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

③ 무분별한 소비 방지

성 미디어를 억제한다고 해서 성적 충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

오히려 음지에서 무분별한 소비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며, 왜곡된 성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적절한 성교육과 함께 건강한 성 미디어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④ 이성과의 만남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치유적 역할

이성과 관계를 맺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음.

신체적 한계로 인해 성적 경험을 갖기 어려운 이들에게 성 미디어는 대리적 체험을 제공하며, 성적 좌절감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성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심리적 준비 과정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2) 성 미디어의 윤리적 제작과 관리 방안

① 출연자의 인권 보호 및 동의 절차

성 미디어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동의한 배우여야 하며, 강압이나 착취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보장하기 위해 출연 계약서 및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촬영 전·후로 출연자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함.

출연자는 언제든지 촬영을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영상 삭제 및 사용 제한이 가능해야 함.

② 건강 검진 및 보상 체계 마련

출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촬영 과정에서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성병 검사 및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촬영 전·후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출연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출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출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연 후 일정 기간 동안 건강 및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③ 성 미디어 보호 및 유출 방지 조치 요약

㉠ 촬영 보안 강화

여성 스태프가 진행하며, 출연자의 신체적·심리적 보호 조치 적용.
외부인의 접근 제한 및 불필요한 영상 즉시 폐기.

㉡ 유출 방지 및 데이터 보호

암호화된 저장 방식과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적용.
불법 복사 방지 및 유출 시 출처 추적 가능한 보안 시스템 도입.

㉢ 법적 조치 및 강력한 처벌

출연자와 유출 금지 서약서 작성 필수.
불법 유출 시 최대 **50년** 징역 및 **5천만 원** 벌금 부과.
법률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법적 대응.

④ 사용 목적 및 대상 제한

성적 해소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치료적·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단순한 오락 목적이 아닌,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 기능.
사용자는 윤리적 기준과 목적을 인지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것을 교육받아야 함.
성적 미디어 의존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건전한 사용을 유도.

⑤ 책임 있는 시청 문화 조성

성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인 시청 문화를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올바른 소비 기준을 마련해야 함.

12. 성 보호케어 서비스의 필요성

① 장애인의 성적 건강과 존엄성 유지

장애인의 경우,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
이를 방지할 경우, 사회적 소외감이 증가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성적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② 상호 동의하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성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장애인, 신체적·심리적 이유로 성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 등)이 원할 경우, 상호 동의하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이는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성적 건강 관리 및 사회적 지원 제공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특히, 자위행위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지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금기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올바른 성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0)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및 복지 지원

(1) 보호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여성

여성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남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사회의 어머니 역할을 맡아야 함.

남성과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교육하는 책임을 지닌 존재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은 선생이자 조력자, 때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와 같은 존재로 기능해야 함.

(2) 여성의 돌봄과 사회 안정

여성이 남성과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지도할 때, 사회는 더욱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됨.

여성의 따뜻한 돌봄과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이 형성되고, 그 영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됨. 역사적으로도 강한 사회와 문명은 여성의 역할이 존중되고 강화된 곳에서 더욱 발전해 왔음.

(3) 여성 복지를 통한 건강한 가정 형성

여성은 남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도, 스스로 쉴 수 있는 복지와 보호가 필요함. 여성이 충분한 휴식과 지원을 받을 때, 더욱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가정을 돌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 정책이 필요함: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출산 후 충분한 회복 기간과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체계 마련.

여성 건강 관리 시스템 구축: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의료 지원 제공.

휴식과 여가 보장 : 여성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사회적 공간 마련.

가정과 직장 균형 지원 :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4) 여성의 역할과 복지의 상호작용

여성에게 적절한 휴식과 복지가 보장될 때,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남성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음.

이는 가정 내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나아가 사회 전체가 조화롭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

따라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여성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결론적으로, 여성이 쉴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남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의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11) 가정 내 성교육의 중요성

(1) 성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

모든 성교육은 학교나 사회가 아닌, 가정 내에서 부모가 먼저 주도해야 함.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2) 부모의 역할 : 성 윤리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

부모는 올바른 성 윤리를 가르치고, 자녀들이 성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성을 단순히 금기시하거나 무조건적인 순결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신뢰 속에서 성을 이해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함.

(3)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성적 신중결정권과 신뢰결정권 교육

성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신중결정권과 성적 신뢰결정권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함.

즉, 성적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한 판단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함.

(4) 자연스러운 성 발달을 돕고, 성적 호기심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소년기에는 성적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므로, 이를 억압하기보다는 건강하게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

부모가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책임감 있는 성 태도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